The Thing 2
1/5

사실상 무의미한 1편의 재탕인데 나름 차별화를 하려고 괴물의 등장씬과 우주선 씬을 대거 추가했지만 , 그 결과 크리쳐물과 심리 스릴러 사이의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명작인 1편을 가지고 싸구려 괴물 영화로 둔갑시켰다 . 마치 중국에서 만든 에일리언 짝퉁이나 다름없다. 게다가 프리퀄이라면서 오마쥬도 제대로 못해서, 마지막 엔딩에서 여주인공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인물이 실제로는 괴물이어서 여주인공이
배신당하고 그 괴물이 개로 변해서 도망치면서 추적으로 끝났어야 했다.

Revision #1
Created 2026-11-15 18:57:24 UTC by 이준호
Updated 2026-11-15 19:00:05 UTC by 이준호